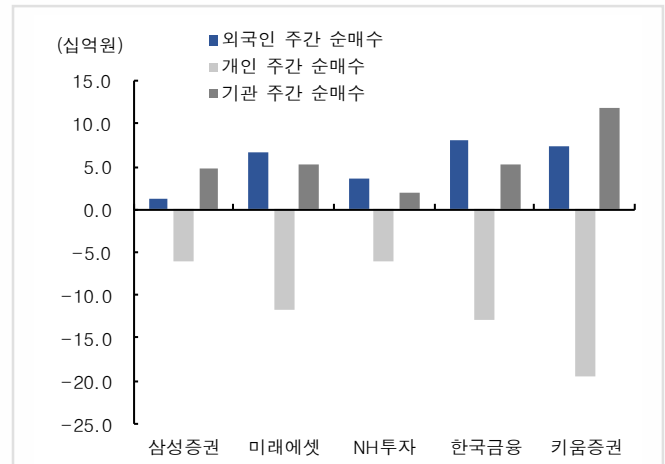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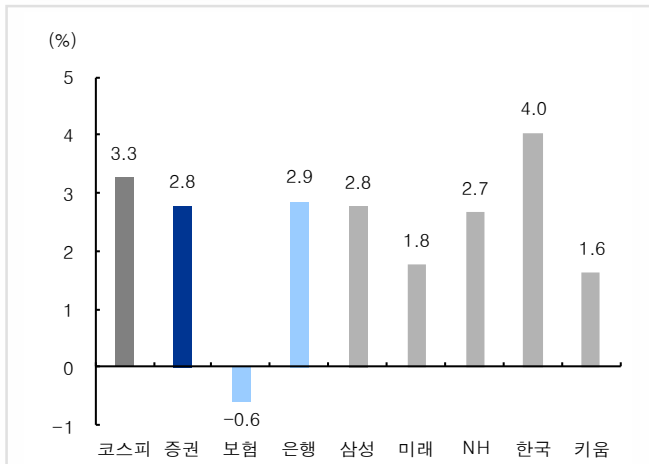


주간 수익률&수급 (11.13~11.16)



업종 코멘트

- 금주 증권업종 수익률은 +2.8%로 코스피 수익률 +3.3% 대비 0.8%p 하회하였음. 금융업종 내에서는 은행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이는 14일 미국 C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에 기인. 한국금융지주는 기존 주가 수준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컸음
- 투자자별 순매수는 전주에 이어 개인은 모두 순매도를 기록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기록함
- 미국 CPI발표 후 15일 일평균거래대금은 17.1조원까지 증가했지만 16일 다시 13.5조원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임. 또한 공매도 금지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경기 악화 및 고금리 지속으로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사업부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되며 업계로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커버리지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IB 및 기타 수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20.2%, 17.5% 증가했으며 부동산PF 영업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나 회사별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실적에 대한 충격은 상이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부동산 시장 위기가 일부 증권사에겐 IB부문 성장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Weekly 주요 뉴스

- ①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 '꽂공'... 증권사, 부동산 사업부 '구조조정' 들어가나 <11.14 / 이코노미리뷰>
 - 미래에셋증권은 7개 본부가 있던 부동산 사업부를 4개 본부로 통폐합함
 - 반면 메리츠증권은 PF 부실 우려에도 상반기에 부동산 전문 인력을 오히려 늘리는 행보를 보임
- ① 하이투자증권, 연봉킹 날리고 부동산PF 축소 <11.14 / 서울경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꺾기' 논란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하이투자증권이 부동산금융 사업을 대거 축소
 - 부동산PF 사업을 이끌며 지난해 여의도 '연봉왕'에 올랐던 김진영 하이투자증권 투자금융총괄 사장도 면직 처리
- ① 美 10월 CPI 예상치 밑돈 3.2%...인플레이션 둔화에 국채금리 급락 <11.15 / 한국경제>
 - 미국 노동부는 10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고 14일 발표. 9월 상승률(3.7%)은 물론 시장 예상치(3.3%)를 밑도는 수치임
 - 이날 오전 물가 지표가 발표된 후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연 4.5% 아래로 급락
- ① 부동산PF '뇌관'에...증권사 위험액 또 최고치 경신 <11.16 / 대한금융신문>
 -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 61곳이 보유한 자산 중 위험액은 36조 2,228억원임. 6월 말 (36조 181억원) 대비 2,047억원 증가
 -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한 건 메리츠증권 (3,006억원), 이어 삼성증권(1,288억원), 한국투자증권(462억원), 노무라금융투자(289억원) 등의 순으로 위험액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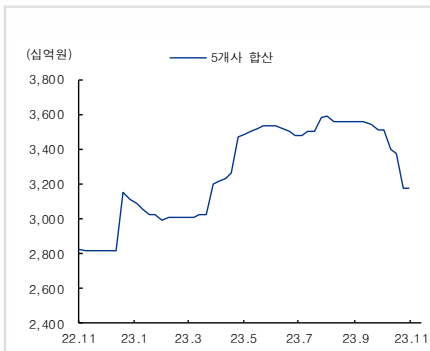
증권 Peer Table

구분	종가 (pt, 원)	시가총액 (조원)	주가 변동률 (%)					2023F			2024F		
			1W	1M	3M	6M	YTD	P/B	P/E	ROE	P/B	P/E	ROE
KOSPI	2,488	1,920	3.3	1.1	-0.7	-2.0	11.3	0.92	15.78	6.0	0.86	10.08	8.8
KRX증권	648	20.0	2.8	6.6	8.1	6.6	16.6	0.43	5.35	8.4	0.41	4.83	8.7
KRX보험	1,609	40.7	-0.6	-5.0	5.3	5.1	13.2	0.40	4.52	11.4	0.37	4.34	8.9
KRX은행	647	89.5	2.9	0.1	6.4	4.6	6.7	0.38	4.19	9.4	0.36	4.00	9.2
삼성증권	38,950	3.5	2.8	3.3	7.6	10.5	23.8	0.52	5.26	10.4	0.49	5.17	9.8
미래에셋증권	7,480	4.5	1.8	24.3	14.0	5.8	23.0	0.40	9.82	5.4	0.39	8.61	5.7
NH투자증권	10,430	3.5	2.7	-0.9	1.6	10.5	18.9	0.49	6.34	7.8	0.46	6.10	7.8
한국금융지주	59,200	3.3	4.0	11.9	17.2	8.6	11.1	0.41	4.14	10.9	0.38	4.07	10.2
키움증권	93,100	2.4	1.6	-8.7	-3.0	-1.1	10.8	0.53	5.80	10.0	0.47	3.88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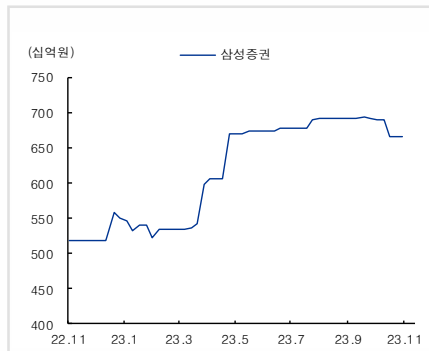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2023년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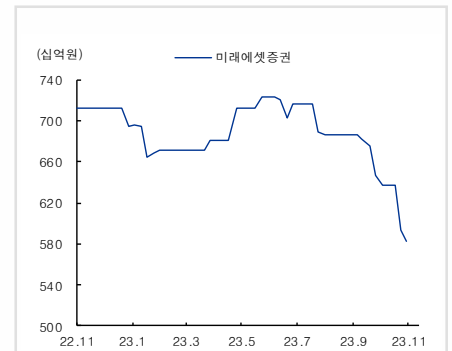
커버리지 5개사 합산 지배주주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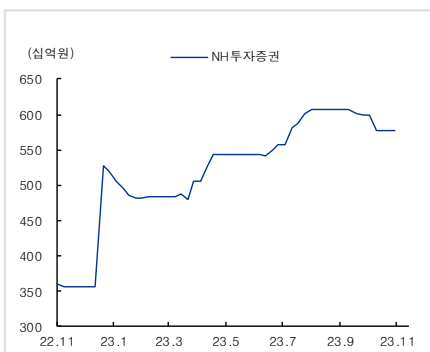
삼성증권 지배주주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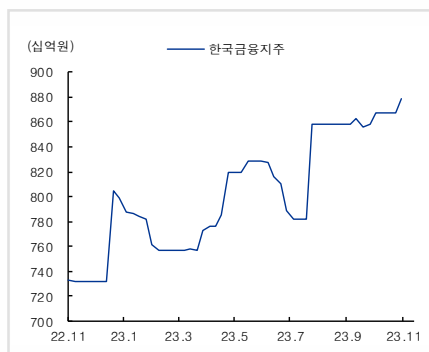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 지배주주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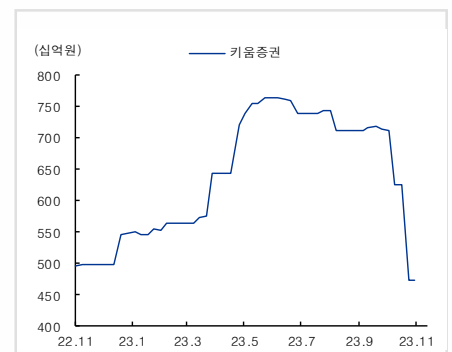
NH투자증권 지배주주순이익 추이



한국금융지주 지배주주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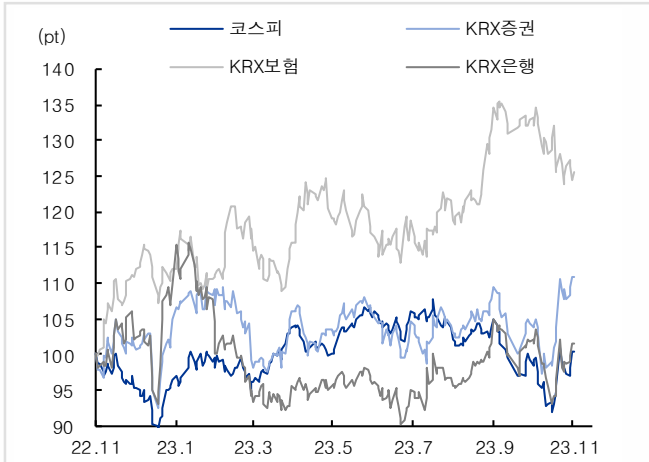
키움증권 지배주주순이익 추이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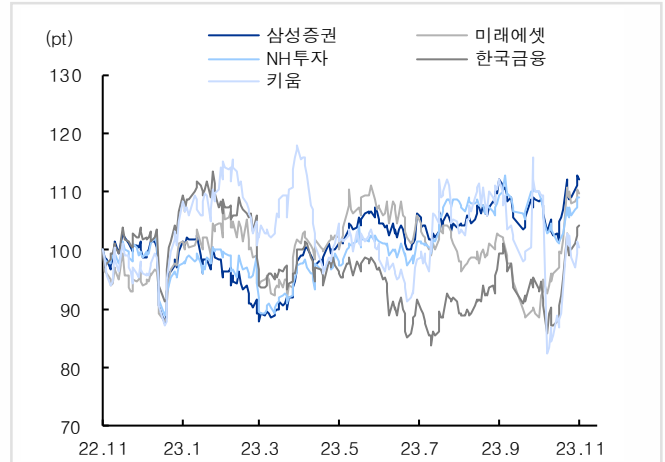
주요 차트

금융업 지수 추이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커버리지 증권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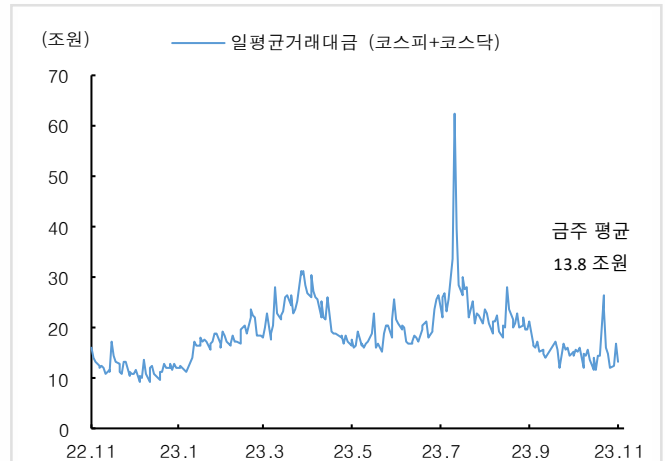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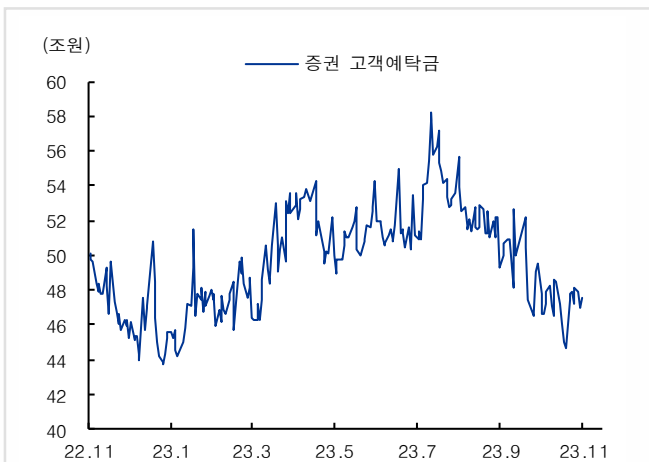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거래대금



고객예탁금



자료: Quantiwise, 금융투자협회, IBK투자증권

신용공여

